

한전·발전 공기업 “2050년까지 석탄발전 퇴출”

DJ센터서 빅스포2021 개막...내일까지 248개 기업 참여

탄소중립 비전 '제로 포 그린' 발표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효율화 등 기술개발전략도

한국전력과 6개 발전 공기업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동 선언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전환부문'에는 1.5GW 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참여 역할을 한다.

한전과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은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 2021' 개막식에서 이란 내용의 탄소중립 비전인 '제로 포 그린(ZERO for Green)'을 발표했다.

이날 막을 올린 빅스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노키아, 델, GE,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KT, SKT 등 국내외 248개 기업이 참여하는 신기술 전시회와 국제콘퍼런스, 국제발명특허대전 등이 진행된다.

우선 전력공기업은 재생에너지, 수소 등 탄소배출이 없는 발전원으로 과감히 전환해 발전 분야 탄소배출을 '제로' (0)화하기로 했다.

전력공기업은 급속히 증가하는 재생에너지를 적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하도록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복잡성이 높아지는 전력망의 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전력급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화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다양한 수요감축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효율 기술 개발 등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전력수요의 분산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관련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린다.

이와 관련해 전력공기업은 공동의 기술개발 전략과 이행방안을 담은 '탄소중립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술개발 전략은 크게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암모니아 발전 등을 위한 연료 전환 ▲지능형 전력그리드 구축 등 4가지로 나뉜다.

전력공기업은 터빈 대형화 및 대규모 단지 시공 기술 등을 개발해 2030년까지 해상풍력의 균등화 발전단가(LCOE)를 현행 대비 40% 이상 절감한 kWh당 1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수전해 기술을 중점 개발해 그린수소의 생산 효율을 현재의 65% 수준에서 2030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료 전환을 위해



1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빅스포 2021' 박람회장에 마련된 한전 신기술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개 '스팟'이 인기를 끌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선 2027년까지 20% 암모니아 연소를 실증하고 2028년까지 50% 수소 혼소 기술을 개발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을 2030년까지 석탄화력 500MW, 가스화력 150MW급으로 상용화해 포집 비용을 현재의 50% 수준인 t당 30달러까지 낮추는 목표도 세웠다.

신안(1.5GW), 부안·고창(1.2GW), 울산 부유식(200MW) 등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과 디지털발전소(IDPP)처럼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대

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위험을 분산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여기로 했다.

한전 측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전환(발전)부분의 탄소배출 제로화와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등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번 비전 선포는 전력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성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변전소 순시 로봇개 '스팟' 인기...에너지밸리 기업 '일자리 박람회' 문전성시

빅스포2021 어떤 내용 담겼나

해외 135개사와 화상 수출 상담

메타버스로 한전 내부공간 체험

에너지산업 기술 한 눈에 볼 수 있는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2021' (빅스포 2021)이 10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접목해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전력이 주관한 빅스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올해로 광주에서 7번째 열린다. 노키아, 델, GE,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KT, SKT 등 국내외 248개 기업이 참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라 모든 참가자는 체온 측정과 문진표 작성을 하고 입장했다. 신기술전시회가 진행되는 제1-3전시장에 기자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들어설 때는 허용인원 2290명 가운데 935명이 체류하고 있었다. 신기술 전시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관, 해상풍력관, KEPCO 홍보관, 신기술 체험관 등 416개 공간이 마련됐다.

한전의 신기술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 로봇개 '스팟'이 인기를 끌었다. 변전소 순시를 하는 스팟의 활약은 매일 세 차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증강현실(AR) 기반 원격 업무와 가상공간 메타버스 체험도 참가객들을 반겼다.

유복현 한전 ICT 기획처 차장은 "한전 내부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지난달 말 마련한 뒤 3100명이 넘는 이용객이 이곳을 다녀갔다"며 "광주에 오지 못하는 관객들은 '빅스포 메타버스'를 통해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68개사가 참여하는 코트라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비즈니스 상담도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참가 기업들은 해외 13개국 135개사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351건에 달하는 수출상담을 벌였다. 이곳에서는 화상회의용 컴퓨터와 영어-베트남어 등 통역사가 제공된다.

에너지밸리 기업 30개사가 참여한 '일자리 박람회'도 첫날 602명이 발걸음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특히 한전 등 공기업 취업상담과 인공지능 모의면접 공간은 지역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의 인기

를 독차지했다. 한전 1-2년차 신입직원 4명은 좁은 취업문을 뚫은 경험담을 들려주며 취업 준비 비결을 나눴다.

김승현 한전 인사처 인재재용부 대리는 "이날 한 명당 10분씩 상담을 벌이며 총 100명의 취업 준비생이 상담 공간을 거쳐갔다"며 "특히 이날 한전 필기시험 합격 발표가 있어서 이 공간이 더 인기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자리 박람회는 12일 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상의, 대선 광주경제 핵심공약 15건 건의

지역현안 5건·산업 육성 5건

광주상공회의소는 10일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계 핵심 공약과제 15건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제20대 대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가 건의한 공약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지역 주요 현안 과제 5건, 지역 산업 육성 과제 5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3건, 기업 경영환경

개선 관련 제도개선 과제 2건 등이다.

지역 현안 과제로는 ▲국가주도의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의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빛고을 메가시티 기반 조성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RE300)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이 포함됐다.

지역 산업 육성 과제는 ▲인공지능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미래 모빌리티 특화단

지 조성 ▲지능형 공기산업단지 조성 ▲초광역 국가 고(高)자기장 연구소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 호텔·복합쇼핑몰 유치 지원 등이다. 이밖에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완성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영산강 유역 국가정원 조성 및 초광역 관광벨트 구축 ▲최첨단 신기술 기반 호남권 최대 테마파크 조성 등 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주력산업의 육성과 도시경쟁력 제고 등 지역민과 지역경제계가 바라는 숙원 사업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 취업자수 1년 연속 감소세 지속

지난달 광주·전남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3만명 늘었지만 제조업 고용은 일 년 내내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취업자는 광주 75만명·전남 10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2000명·2만8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국내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 10월에 비해서 광주 취업자는 1만1000명 감소했고, 전남은 1만8000명 늘어난 수치다.

지역 제조업계는 이 같은 고용 회복세를 실감하기 힘들다.

지난달 지역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보다 광주는 6000명, 전남은 7000명 줄었다. 광주 취업자 감소세는 17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으며, 전남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외에 건설업 취업자도 광주에서 1000명, 전남서 5000명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점 취업자는 광주 5000명 증가, 전남 1000명 감소했다. 농업·임업 및 어업 부문은 광주가 4000명 줄어든 반면, 농민기를 맞은 전남에서는 1만1000명이 늘었다.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광주 1만6000명·전남 1만8000명 등 3만4000명이 증가했다. 임금근로자가운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상용근로자는 광주 1만6000명·전남 9000명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미국 전력연구원과

공동연구소 설립 등 협약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미국 전력연구원(EPR)과 미래 에너지산업분야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서는 처음 이뤄졌다. 두 기관은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고 공동연구 수행, 교류량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대는 앞으로 EPR의 자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탈탄소화 등의 미래 에너지 분야 기초·융합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한다. EPR는 1972년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윤의준 총장과 EPR 부사장이 참석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30.17 (-32.29)
↓ 코스닥	987.75 (-20.93)
↑ 금리 (국고채 3년)	1.877 (+0.012)
↑ 환율 (USD)	1180.90 (+3.70)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범	목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목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형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